

조재수의 사전 이야기 · 우리말 보물 찾기 · 남녘말 북녘말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겨레말 책 인권 · 겨레말 소식

■ 조재수의 사전 이야기

‘겨레말 큰사전’을 편찬하면서… (1)

_ 조재수 / 겨레말큰사전 남측 편찬위원

사전 편찬

사전 편찬은 말(어휘)을 캐고 풀이하는 일이다. 그 하는 일이 역사학자가 역사 사실을 캐고 밝히는 일과 비슷하다. 역사적 사건과 경험은 주로 언어로 전해진다. 그러면 역사 자료란 모두 진실한 것일까? 사건의 언어 자료란 전하는 사람이나 기록한 이의 생각과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역사학자는 역사의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심한다. 역사 자료(텍스트)에 대한 검증과 해석을 끊임 없이 되풀이한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 없는 대화”라고 한 영국의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 Carr, 1892~1982)의 생각도 그러한 것이었다. [참고] <조지형: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 함케&카>(김영사, 2006)

언어 사전 편찬도 그렇다. 역사 자료에 대한 검증, 해석과 마찬가지로 사전 편찬에서도 어휘 자료에 대한 검토와 바른 해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언어 자료나 역사 자료는 과거의 자료이며 현재의 자료이다. 사전 편찬의 대상 또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어휘 자료들이다. 언어 사전 편찬자가 한 어휘를 해석하는 일은 그 어휘의 형태와 뜻바탕을 면밀히 밝히는 작업이다. 그러자면 편찬자는 그 어휘와 많은 시간을 머리 속에서 또는 언어 현장에서 묻고 답해야 한다. 무언가 밝힐 수 있을 때까지, 또 한번 터득한 것도 다시 생각하여 제대로 밝힐 때까지의 과정들이 바로 편찬자와 어휘와의 꾸준한 대화라 하겠다. 겨레말에 담긴 겨레의 소리와 의미와 정서를 읽어내는 작업이다.

우리 사전 편찬자들은 우리말 어휘와 얼마나 깊은 대화를 해 왔을까? 낱말의 말에도 역사가 있다. 낱말이 생겨나고 변하고 뜻이 더해지고 축소되기도 하는 변천 과정이 그 낱말의 역사이다. 말은 또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의 낱말이 쓰이기도 하고, 같은 낱말이라도 그 쓰임새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낱말과의 대화란 그 말의 시간과 공간의 자취를 두루 캐는 작업 과정이다.

국어사전 100년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가 100년이 되었다. 우리말 뜻풀이 사전 편찬의 처음은 1911년 주시경(1876~1914) 선생과 몇몇 제자들이 조선광문회서 시작한 <말모이> 편찬이었다. 이 첫 시도는 불행히도 미완성에 그치고 말았다. 전해 오는 우리말 사전의 기본 자료는 1910~1930년대의 올림말과 풀이된 내용들이다. 조선광문회의 <말모이> 원고는 극히 일부가 전한다. 조선어에 일본어로 풀이를 한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은 1920년에 나왔다. 한자어 40,734 어휘, 언문어 17,178 어휘, 이두 727 어휘, 모두 58,639 어휘였다. 문세명 저 <조선어사전>은 1938년에 초판, 1940년에 수정 증보판이 나왔고, 약 10만 어휘였다. 한글학회(전 조선어 학회)의 <조선말 큰사전>(나중에 ‘큰사전’)은 1929년에 시작하여 1957년에 완간되고, 올림말이 164,125 어휘였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에서 많은 국어사전이 나왔으나 이 글에서 그 사전들의 소개는 줄이기로 한다.

새로운 사전 편찬에서 기존 사전을 참고할 때는 당시 편찬자의 풀이 내용과 표현을 잘 읽어야 한다. 설불리 늘이고 줄여서 재생산할 일이 아니다. 잘 파악된 기존의 풀이에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표현이 어렵고 불분명하다면 글다듬기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오늘의 시점에서 모자라는 뜻갈래가 있다면 풀이를 더 해야(보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편찬자는 문제의 어휘와 용례들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사전 편찬 환경

오늘날 사전 편찬의 환경은 필자가 경험한 1960~1980년대 이전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달라졌다. 펜과 카드로 편찬하던 시대에서 컴퓨터로 편찬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카드 박스로 짐차에 가득할 분량이던 편찬 자료가 각 편찬원의 컴퓨터에 들어 있게 되고, 또한 많은 참고 문헌 자료가 컴퓨터에 갈무리되어 며칠 단위로 관련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겨레말 큰사전 편찬 사업회’ 남측 편찬실에는 1억 어절이 넘는 인용 말뭉치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어떤 분야든 관련 연구 자료는 많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 가치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말한다. 거대한 편찬 자료의 활용은 편찬 사업의 규모와 계획 기간에 따라 두루 섭렵할 수도, 그 일부를 열람하는 데 그칠 수도 있다. 얼마 안 되는 인력으로 3년이나 5년 정도에 완성해야 하는 계획이라면 그렇게 많은 자료의 섭렵은 어려울 것이다. 각종 연구 자료 구축에는 양에 못지않게 질적인 고려도 따라야 한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되 정리된[定本] 자료가 많아야 한다. 여러 이본들의 집합체는 편찬자가 가려보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이게 하고 또 잘못된 자료를 적용하게도 한다. 실제로 잘못된 자료를 적용한 사례가 기존 사전들에서 발견된다.

사전 편찬인

어떤 분야에 첫 삽을 뜬 이들은 먼저 그 일에 남다른 뜻이 있었고, 그 일을 사명으로 생각한 이들이다. 우리말 사전의 처음인 <말모이> 편찬을 시작한 주시경 선생과 그 제자들, 혼자서 사전 편찬을 단행한 이상춘(李常春 1882~?)과 문세명(文世榮, 1895~1952), 조선어 학회 사전 편찬 실무의 선구자로 함흥 감옥에서 희생된 이윤재(李允宰, 1888~1943) 선생 등도 그러한 분들이다. 그들은 사전 편찬으로 죽어가던 겨레말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선각자들이었다.

오늘날 사전 편찬인은 필요한 시기에 한동안 종사하는 연구원이나 직업인이다. 사전 편찬을 이끌 전문인은 드물고, 반면 ‘사전학’을 강의하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 우리말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갖춘 이들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고유 언어가 있고, 고유 언어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다. 그 그릇을 채우는 이가 사전 편찬인들이다. 우리 사전 편찬은 지속적인 연구 사업이 되지 못해 전문 인력이 길러지지 못하였다. 편찬에 대한 이론이나 실무는 착실한 언어학적 지식에서 비롯된다. 언어학도로서 자기 언어를 직접 다루어 분석하고 정리하고 풀이하는 능력은 중요하다. 이러한 능력은 편찬 실무에서 익혀진다. 여기에 국어사전 편찬 전문 기구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까닭이 있다.

세태는 점점 세계화 속에 밖으로만 향하고 있다. 우리 것을 돌아볼 생각과 겨름은 없어 보인다. 국어 교육은 입시 교과목으로나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말 어휘는 한자나 영어(또는 영어식) 단어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나라의 위기 속에 사전 편찬으로 겨레의 말을 붙들고자 했던 선각자들의 뜻을 함께 되새겨보자. 100여 년 전 주시경 선생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자.

이 때를 타고서, 외국의 말과 글은 바람 따라 흐르는 조수에 밀려 닥치는 사나운 물결처럼 몰려 들어와, 미약한 국성(國性)은 전쟁에 진 싸움터의 고달픈 깃발처럼 움츠러지니, 이 때를 당하여 국성을 보존하기에 가장 소중한 제 나라 말과 글을 이 지경에 두고 도외시하면 국성도 날로 쇠퇴할 것이요, 국성이 날로 쇠퇴하면 그 영향이 미치는 바는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마침내 나라 힘의 회복은 바라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말과 글을 조사하여 바로잡아서 이를 장려함이 오늘의 급한 일이라 하겠다. <주시경: 조선어 문전 음학(머리말)>(1908, 박지홍 풀이 씀)

*(다음 호부터는 국어사전 속에서 애깃거리를 찾아보겠습니다.)

- ◆ <조재수의 사전이야기>는 겨레말큰사전 조재수 편찬위원이 들려주는 ‘국어사전에 관련된 이야기’로 1년 동안 연재됩니다.

조재수의 사전 이야기 · 우리말 보물 찾기 · 남녘말 북녘말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겨레말 책 안권 · 겨레말 소식

■ 우리말 보물 찾기

재일 교포들의 독특한 언어 '짬뽕말'

김미선 /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외래연구원
겨레말큰사전 일본 지역 우리말 조사자

얼마 전 한국어 공부를 함께 하는 일본 학생들이 서울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내게 물었다. “선생님, 한국에서는 ‘지지미’라는 말이 없어요! ‘카쿠테기’를 부탁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며 최근의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사랑하기 시작한 학생들이다. 한국음식도 좋아하게 되어, 한국식당에도 자주 다닌다. 그런데 지지미, 카쿠테기¹⁾ 등 한국식당을 다니며 열심히 외워 둔 한국어가 정작 한국, 서울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다. 이 곳 일본, 특히 오사카에서 접하는 한국 음식과 명칭에는 한국의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과 같은 남도 문화권의 영향이 강하다는 것까지 학생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일본어가 되다시피한 ‘지지미’와 ‘카쿠테기’가 이곳에서 1세기를 살아온 재일교포의 식문화에서 전달된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일본에는 현재 약 60만의 재일 교포가 거주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건너와 어렵게 정착 기반을 마련한 1세들이 만든 재일교포 커뮤니티는 2세 3세들에게 정착이 되어 현재는 4세 5세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재일교포 커뮤니티 특징은 민족문화의 계승에 있을 것이다. 전국에 교포 거주지역이 있으며,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민족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민족학교를 두고 있다. 각 지역에는 식문화를 전달하는 시장이 있어 명절에는 한국시장 못지않게 붐비기도 한다. 관혼상제를 한국식으로 치르며, 세대가 바뀌어도 아이들에게 한국식 이름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적인 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본 학교를 다니며, 일본의 음식을 즐기고 한국식 이름 외에도 일본식 이름(통명)으로 생활하고 있다. 한국의 민족문화를 계승한 일본사회의 일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언어는 대부분이 일본어로, 한국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언어에 한해서는 다른 문화적인 내용에 비해 언어를 계승하기에는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며 더욱이 일본사회의 혹심한 차별과 편견 속에서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사용하게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1세들조차 태어나서 사용해오던 조선어를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피해왔다는 증언을 당사자들로부터 접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일본어가 생활언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교포 사회에서는 아직도 한국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친족 명칭이나 음식, 관혼상제 등 한국의 문화적인 내용을 담은 용어들이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오모니’, ‘아보지’라고 호칭한다. 조부모는 ‘함메’, ‘하루베’, 고모와 이모는 ‘고모니’, ‘이모니’로 불린다. ‘어머니’가 ‘오모니’로, ‘아버지’가 ‘아보지’로 호칭되는 이유는 이 곳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의 모어인 일본어의 음구조가 한국어에 발음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일본어는 모음이 다섯 개(a,i,u,e,o)로 이 다섯 모음에 벗어나는 한국어의 모음은 이 다섯 모음 중의 비슷한 모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함메’와 ‘하루베’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방언형인 ‘할메’와 ‘할베’가 일본어 개음절 음절구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고모니’, ‘이모니’도 마찬가지로 일본어의 개음절 영향으로 받침이 생략된 예이다.

이와 같이 일본어의 영향으로 변형된 한국어는 발음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법 어휘 표현 전반에 걸쳐 찾아 볼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짬뽕말’이라는 재일 교포가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가 존재한다. 학술적으로는 코드스위칭(Code-Switching), 코드믹싱(Code-Mixing)이라 불리며, 언어 병용화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짬뽕말은 재일교포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현상이 이곳 식으로 명칭화 된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일본에서는 국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이 없는데(밥에 오차를 부어먹는 오차즈케와는 다른 방식이다.) 이곳의 한국인들은 국에 밥을 말아 먹을 때, ‘마라스루’, ‘모라스루’, ‘조망스루’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이들 표현에 사용되는 ‘스루(する)’는 한국어의 ‘하다’와 일치하는 동사형으로 앞부분의 ‘마라’는 ‘말다’의 연용형 ‘말아(마라)이고, ‘모라’는 남부 방언형 ‘물다’의 연용형 ‘물아(모라), ‘조망’은 제주 방언의 ‘좁다’의 연용형 ‘조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한국어의 연용형에 일본어의 동사형으로 재생산된 ‘짬뽕말’은 1세들이 주로 모이는 시장이나 학교, 그리고 가정 내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민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나누는 잡담에서 들려오기도 하며, 교포가 주최하는 집회나 이벤트에서도 흔히 사용된다.

젊은이들에게는 ‘짬뽕말’에 사용되는 한국어가 일본어로 인지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세대교체와 함께 사용언어도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교체되었지만, 1세들이 고향에서 사용하던 생활문화와 언어가 세월과 함께 일본어 환경에 잔존되어 있는 것이다.

재일교포가 이곳에 정착한 지 100년이 지난 지금 이곳 일본의 한국 커뮤니티는 여러 면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의 해외 여행자유화 이후에 건너온 ‘뉴커머’들이 교육과 경제활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약을 하고 있으며, 한류 붐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본사회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생활문화를 보는 일본의 시선에도 편견적인 요소가 사라져 가고 있다. 기뻐하고 환영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긴 세월을 차별과 편견의 역경을 견디며 일본사회에서 민족문화를 보존해 온 ‘올드커머’의 언어적 상황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세의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잊혀 지기 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 짬두기

조재수의 사전 이야기 · 우리말 보물 찾기 · 남녘말 북녘말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겨레말 책 안권 · 겨레말 소식

■ 남녘말 북녘말

‘이악하게 노력한다’

_ 권화옥 / 수원시청 근무

중국 체류 당시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들이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도착해 교육을 받을 당시 선생님들로부터 “사회에 진출하면 언어 장벽이 제일 크다.”라는 얘기를 전해들을 때마다 나는 아마도 ‘외래어’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생각도 잠시뿐 정착 사회에 나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외래어’가 아닌 ‘우리말’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적잖이 당황하였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나는 나름대로 ‘우리말’에 대해선 자신이 있다고 여겼었다. 그러나 한민족이지만 60여 년이라는 분단의 장벽은 세종대왕의 한글도 서로 다른 뜻으로 표현되게 만든 것일까? 한국에 정착한 지 어느덧 3년째 접어든 나는 남북한 언어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미 새터민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던 분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남북의 언어 차이 중에 제일 헷갈리는 것은 ‘오징어’와 ‘낙지’ 같은 어떤 한 대상을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남쪽의 ‘오징어’를 ‘낙지’라고 부른다. 한창 여름철 바닷가 쪽에 사는 사람들은 낙지(남: 오징어)철이 되면 한해 양식거리를 마련하느라 말 그대로 피를 말리는 ‘전쟁’을 한다. ‘낙지잡이가 사람 잡이’, ‘낙지 말리기가 피 말리기’ 라고 말할 정도로 여름 한철은 낙지와 의 전쟁이다. 하지만 수많은 낙지를 자기 손으로 잡고 말리고 하면서도 정작 변변히 먹어보지 못한 이유에서인지 새터민들이 정착 초기에 가장 좋아하고 많이 찾는 것이 마른 오징어가 아닐까 싶다.

또한 숫자를 부르는 데서도 차이가 느껴진다. 한번은 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세키로 주세요.” 라고 주문했더니 정육점 주인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 알아들었는지 주문대로 고기를 내주긴 했지만 의문의 눈길은 거두지 못하였다. 훗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서 ‘한키로’, ‘두키로’, ‘세키로’ 라고 하는 것을 남한에서는 ‘일키로’, ‘이키로’, ‘삼키로’ 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밖에 남북 언어 표현이 다른 것으로는 텔레비전 채널을 북한에서는 통로, 터널을 ‘동굴’, 처갓집을 ‘가시집’, 한약을 ‘동약’, 상대하다를 ‘대상하다’, 상호간을 ‘호상간’ 등으로 쓰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이악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이 뜻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이악하게 노력한다.”, “이악하게 산다.” 등으로 쓰인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이악하다’를 “달라붙는 기세가 굳세고 끈덕지다.”, “이익을 위하여 지나치게 아득바득하는 태도가 있다.” 라는 뜻으로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

이렇듯 나는 남한에 와서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언어표현의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표준어는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 예를 든다면 ‘다르다’를 ‘틀리다’, ‘날아다니다’를 ‘날라다니다’로 표현하는 것은 틀린 표현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틀린 표현대로 따라서 쓰게 되는 경우는 종종 있기도 하다. 아울러 서로 다르게 표현하거나, 같은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는 등 남북한 ‘언어의 차이’ 때문에 자칫 오해를 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가끔 가지게 된다.

끝으로 남과 북의 언어적 차이를 줄여 나가기 위해 하루 빨리 《겨레말큰사전》이 편찬되어, 통일을 만들어 가는데 한발 한발 다가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뜻풀이 깊고 더하기

돌사닥다리 (1)

이길재 / 겨레말큰사전 새어휘팀장

현의 발길은 {돌사닥다리가} 시작되는 산기슭까지가 고작이었다. / {돌사닥다리가} 끝나고 길이 한결 평평해지자 그는 노부인의 손을 뿌리치고 두 손을 바지주머니에 찔렀다. 《박완서: 오만과 몽상》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나는 ‘돌사닥다리’는 “돌이나 바위가 많아 매우 험한 산길을 사닥다리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 “《돌바위에 난 층이 진 험한 산길》을 사닥다리에 비겨 이르는 말(《조선말대사전》)”, “돌이 많아 몹시 험한 산길을 사닥다리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고려대 한국어대사전》)로 풀이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돌사닥다리’를 [돌+사닥다리]와 같이 분석하고, ‘사닥다리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쓰는 도구’의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지난 호에 ‘돌각다리’의 뜻풀이를 검토하면서, ‘돌사닥다리’의 뜻풀이가 애초부터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돌사닥다리’는 맨 처음 등재된 사전은 1920년에 간행된 《조선어사전》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돌사닥다리 [명] 山中의 巖石多き 險阻なる 路. (돌가닥다리).

《조선어사전》에서 ‘돌사닥다리’는 “산중에 바위와 돌이 많은 험조한 길”로 풀이되어 있다. 이후 간행된 대부분의 사전들은 이 뜻풀이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조선어사전》이 간행되기 이전 문헌자료에서 위와 같은 뜻풀이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예가 발견된다. 1800년대에 중국 소설 《서한연의》를 초역한 《장차방전》과 1912년에 간행된 김교제의 번안소설 《비행선》이다.

군수를 거느려 검각을 너머 고운산의 울너 보니 산길이 괴구궤며 하늘의 다하고 구버보니 억만 장미는 혼 구형의 나모와 {돌사닥다리} 길이 솜뻑 니를 썩쳐스니... 《미상: 장차방전》

다시 요기를 든든이 혼 뒤에 산꼭적이로 조차 내려오느되 괴구궤 {돌사닥다리} 빗탈길에 발 붓치기가 어렵고 그 아리는 쏘아 아득궤야 천길 만길이나 되느되... 《김교제: 비행선》

위의 ‘돌사닥다리’의 뜻이 《조선어사전》의 뜻과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조선어사전》 뜻풀이 자체가 ‘산길이 괴구궤며 ~ 돌사닥다리 길’, ‘괴구궤 돌사닥다리 빗탈길’의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너덜길’이 ‘돌이 많이 깔린 비탈길’인 것처럼 ‘돌사닥다리’는 ‘길’의 한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돌사닥다리’는 길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말일까? 그 실마리를 ‘돌사닥’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서흥서 봉산으로 오는 길에 길을 보지 안코 한눈 팔다가 {돌사닥에서} 굽 하나를 몹시 접질리더니... 《홍명희: 임궫정》

개천의 {돌사닥을} 벗어나니 금방 마트막한 잘록이가 나타났다. 《김주영: 객주》

위의 예처럼 ‘돌사닥’이 [처소]를 나타내는 토 ‘에서’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과 개천의 돌사닥을 벗어나니의 표현으로 유추해 보면 ‘돌사닥’이 ‘어떤 지형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돌사닥’은 [돌+사닥]과 같이 분석될 수 있으며, ‘돌’과 관련된 어떤 지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돌사닥’은 《조선말대사전》의 ‘돌서덕’과 무관하지 않다. ‘돌서덕’은 ‘돌이 많은 강이나 내의 바닥’이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개천의 돌사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돌사닥’은 강이나 내에 한정된 지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방이 험히 트인 {돌사닥길에} 달빛이 마전한 무명처럼 허영게 깔리고 멀리 바라보이는 숲에서는 초겨울바람이 스산하게 숲을 가르고 있었다. 《김주영: 객주》

{돌사닥길은} 멀리까지 험하다가 문득 숲과 마주쳐서는 흔적도 없이 양속으로 잦아지고 있었다. 《김주영: 객주》

{돌사닥길이어서} 눈 어두운 나귀는 자주 돌을 차고 주춤거렸다. 《김주영: 객주》

위의 예처럼, ‘돌사닥길’은 ‘사방이 험히 트인’ 숲속에 있는 길이며, ‘멀리까지 험하다가 문득 숲과 마주쳐서는 흔적도 없이 양속으로 잦아지는’ 길이며, 나귀가 ‘자주 돌을 차고 주춤거리는’ 길이다. 마치 오른쪽 사진 속에 있는 길과 흡사하다.

사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돌사닥’은 ‘돌이 많이 쌓여 있는 어떤 지형’이며, 산비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돌너덜’, ‘너덜경’, ‘너덜’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돌서덕’의 ‘서덕’과 ‘돌사닥’의 ‘사닥’은 그 말뿌리가 같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닥’과 ‘서덕’은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말들이다. 이 ‘사닥’과 ‘서덕’의 뜻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말은 《조선말대사전》의 ‘사덕’, 제주 지역어의 ‘서드럭밭’, 함북 지역어의 ‘사들기’이다. ‘사덕’은 ‘디디면 푹푹 빠지는 진펄’, ‘서드럭밭’은 ‘돌무더기와 잡초목이 얼크러진 것이 여기저기 있는 밭’, ‘사들기’는 ‘바닥이 무르고 질푼한 돌’이다. 따라서 ‘사닥’, ‘사드럭’, ‘사덕’, ‘사들’, ‘서덕’은 의미나 형태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어떤 특성을 가진 곳’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돌이 많이 깔린 곳’(《조선말대사전》) 혹은 ‘뉘가나 강가 따위의 돌이 많은 곳’(《표준국어대사전》)인 ‘서덜’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돌사닥’은 ‘돌이 많이 쌓여 있는 곳’으로 풀이될 수 있으므로, ‘돌사닥다리’는 [돌+[사닥+다리]]보다는 [[돌+사닥]+-다리]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이 옳다면 ‘돌사닥다리’의 ‘사닥다리에’ 근거하고 있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1) ‘돌서덕’이 ‘강이나 내’에 한정된 지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이었음에도 며칠 대로 며칠 실개천 하나가 마을 앞으로 흐를 뿐이고 나무라고는 키 낮은 자작나무가 들성들성 보이는 {돌서덕} 왜기밭들이 바람벽 같은 가파로운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김재성: 나루가의 밤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돌서덕’은 ‘가파로운 산비탈’에도 있다. 따라서 《조선말대사전》의 ‘돌서덕’은 ‘돌이 많이 쌓여 있는 곳’으로 뜻풀이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돌서덕’은 ‘돌서덜’과 함께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다음호에 계속》

조재수의 사전 이야기 · 우리말 보물 찾기 · 남녘말 북녘말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겨레말 책 한권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책 한권

‘북한의 조선어학전서 연구’ 출간

2005년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편찬한 『조선어학전서』(총 47권)에 대한 국내 연구서가 권재일 국립국어원장(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에 의해서 최초로 출간되었다.



권재일 원장의 『북한의 조선어학전서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는 『조선어학전서』(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60년간의 북한의 언어학 연구의 성과를 연구사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조선어학전서』의 성과도 확인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책은 언어 이론과 언어 정책, 우리말의 문법 구조, 음운 구조, 의미와 어휘 구조를 비롯하여 역사, 방언, 사전, 언어공학, 언어규범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조선어학전서』(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는 북한의 일반언어학 연구와 규범적 언어 연구의 성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지난 2006년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에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문영호 소장(겨레말큰사전 북측편찬위원장)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주체의 언어 이론」, 「우리말 연구사」, 「말소리 연구」, 「문법 연구」, 「방언 연구」, 「언어공학 연구」, 「언어규범 연구」, 「사전편찬 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전편찬 연구」에서는 남북 시범 뜻풀이 예를 《겨레말큰사전》을 들어 남북간 합의한 뜻풀이 예를 보여주고 있다.

권재일 원장은 이 책을 통해 "분단된 이후 남한과 북한 모두 언어학 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서로 다른 언어 이론을 배경으로 서로 다르게 언어 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소개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이즈음에 남북한의 학문 연구와 교육의 협력을 위해, 통일 이후에 전개될 우리말과 우리말 연구와 교육의 통합을 위해 남북 언어 연구의 협력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며, 남북한 언어학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조재수의 사전 이야기 · 우리말 보물 찾기 · 남녘말 북녘말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겨레말 책 안권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소식

2012년 새어휘 용역 사업 설명회 개최



사업회는 지난 1월 30일과 2월 1일 <2012년 새어휘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새어휘 사업 설명회는 <말뭉치 구축 사업>과 <새어휘 조사 사업> 설명회로 나눠 진행되었다. 첫째 날은 <말뭉치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회로 사업회 소개, 구축 방법 등 말뭉치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진행되었

으며, 설명회 둘째 날에는 <새어휘 조사 사업>에 대한 교육으로 새어휘 조사 사업 소개, 조사 방법, 새어휘 입력 시스템 등이 자세하게 교육되었다.

2012년 새어휘 용역 사업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재수의 사전 이야기 · 우리말 보물 찾기 · 남녘말 북녘말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겨레말 책 안권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소식

사업회 업무 감사 진행



사업회는 2011년 사업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2월 7일과 8일 사업회 감사를 받았다.

이재호 상임감사가 진행한 이번 감사는 사업회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 사업 계획, 재무제표, 기금집행현황 등 사업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 보았다. 사업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업회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감사에서 권고된 사항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사업회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회 운영과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더 매진할 것이다.